美術史學硏究 第303號 2019.9 pp.233-256
http://dx.doi.org/10.31065/ahak.303.303.201909.008

한성미술품제작소 설립 및 변천과정 연구*

정 지 희**

Ⅰ. 머리말
Ⅱ. 한성미술품제작소 설립과 이왕직체제로의 전환
Ⅲ. 이왕직미술품제작소의 성장과 상업화
Ⅳ. 조선미술품제작소 출범과 해체
Ⅴ. 맺음말

Ⅰ. 머리말

근대공예의 이해에 있어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단연 '이왕직미술품제작소'이다. 이왕직미술품제작소는 대한제국 왕실의 지원을 받아 설립되어 왕실기물제작소로 인식되어 왔다. 명칭은 '한성미술품제작소'라는 설립 당시 명칭보다 두 번째 명칭인 이왕직미술품제작소가 대표명으로 정착되었다. 설립목적에 있어서도 상품의 제작과 대중유통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채 조선 고유의 미술품 제작에 초점이 맞춰져 언급되어 왔다.

그런데 당시 신문기사나 광고를 살펴보면 한성미술품제작소의 설립목적이 조선 고유의 미술품 제작과 함께 일반 수요에 부응한 염가 판매에도 비중을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성미술품제작소에 대한 단편적인 인식의 고착화가 지속된 원인은 한성미술품제작소-이왕직

* 본 논고는 2018년 10월 20일 제61회 전국역사학대회 미술사부(주제: "미술품의 유통과 소비")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미술품제작소-조선미술품제작소라는 변천과정을 고찰하면서 한성미술품제작소의 실재에 주목한다기보다는 대한제국이 일본에 강제병합되고, 왕실업무를 담당하던 궁내부 대신 이왕직이 설치되는 역사적 사건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1908년부터 1913년 6월까지 운영되었던 한성미술품제작소의 존립기간은 1910년까지로 짧게 설정되고, 이왕직미술품제작소는 이왕직이 설립된 1910년부터 1922년, 조선미술품제작소는 1922년부터 1937년경으로 설정되어 왔다. 조직의 기틀을 마련했던 한성미술품제작소가 사실과 다르게 저평가된 이유는 이왕직미술품제작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성미술품제작소의 실체를 알려줄 실물자료가 드물고, 이왕직미술품제작소에 매몰된 연구풍토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한성미술품제작소는 1908년부터 1913년까지 약 5년 동안 운영되면서 조직기반을 충분히 다졌을 뿐만 아니라 예술성과 상품성을 겸비한 전환기적 미술품을 제작한 근대적 제작소라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본고는『純宗實錄附錄』, 각종 商工자료, 신문기사, 지도 등 다양한 문헌과 시각자료를 활용하여 한성미술품제작소의 단계별 변천과정과 내재적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그동안 학계에서 평가절하 되었던 한성미술품제작소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그 학술적 의의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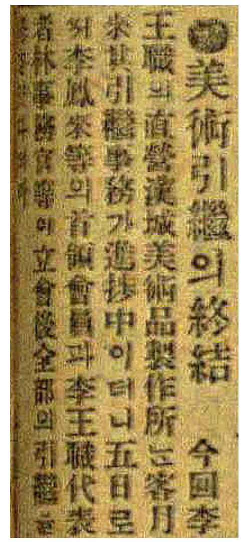
Ⅱ. 한성미술품제작소 설립과 이왕직체제로의 전환

1. 한성미술품제작소의 설립

1908년 10월 왕실 자본금 6만 원으로 설립된 한성미술품제작소는 1909년 李鳳來, 白完赫, 金時鉉, 李健赫 4인이 각 1만 원을 출자하면서 확대 운영되었다.[1] 한성미술품제작소의 운영방식은 이봉래 등 4인의 경영 참여와 조합원들의 출자로 운영되는 조합 형태의 민간위탁 운

1 자료에 따라 설립시기가 1908년 10월 또는 1909년으로 표기되기도 하나, 1908년 11월『皇城新聞』기사로 보아 1908년으로 보는 것이 설득력 있다. 小川鶴治,「朝鮮の美術工藝」,『朝鮮』38 (1911.4), p. 31; 朝鮮總督府,『京城商工業調査』(1913), pp. 34;『皇城新聞』,「工場建設의 豫定」, 1908년 11월 21일자 기사;「四氏의 御用場 擴張」, 1909년 1월 12일자 기사.

도 1 한미명이화형잔탁 및 각인, 1908-1913, 은, 최대지름 9.4cm, 높이 1.5cm,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美術引繼의終結 今回李
王職의直營漢城美術品製作所는客月
來其引繼事務가進捗中이더니五日로
對李鳳來等의首領會員과李王職代表
者林事務官等이立會後全部의引繼를

도 2『매일신보』,「미술 인계의 종결」, 1913년 6월 5일자 기사

영체제였다.[2] 한성미술품제작소는 이왕직미술품제작소-조선미술품제작소로 변천하였는데 한성미술품제작소의 운영기간이 1910년까지로 잘못 설정되어 한성미술품제작소에 대한 연구는 출발부터 태생적인 문제점을 갖게 되었다.[3]

2006년 한성미술품제작소를 뜻하는 漢城美術 또는 漢美각인이 찍힌 은공예품이 알려지면서 한성미술품제작소와 제작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도 1).[4] 이러한 관심은『純宗實錄附錄』,『皇城新聞』,『每日申報』등의 문헌조사로 진전되어 한성미술품제작소가 1910년이 아닌 1913년 6월까지 운영되었던 사실이 밝혀졌다.[5] 결정적 근거는『매일신보』1913년 6월 5일자「美術引繼의 終結」기사로 한성미술품제작소의 이왕직으로의 인계가 마무리되었다는 내용이다(도 2). 한성미술품제작소는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1913년 6월 초까지 약 5년간 운영되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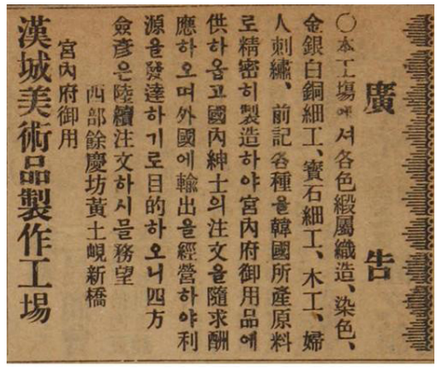
한성미술품제작소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디에 세워졌는지,

2 『純宗實錄附錄』4권,「한성미술품제작공장을 이왕직으로부터 인수하다」1913년 6월 5일 2번째 기사. 이봉래, 백완혁, 김시현, 이건혁 4인의 발기인이 조합경영을 하였음을 언급하고, 한성미술품제작소가 이왕직으로 인수될 당시 조합원들에게 2만 4천 원을 회감하고 조합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3 최공호,「李王職美術品製作所 硏究」,『古文化』34 (1989), pp. 97-9.;「韓國 近代工藝史 硏究: 제도와 理念」,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한국 근대 공예사론 산업과 예술의 기로에서』(예술문화, 2008), p. 255.

4 정지희,「이준용묘 출토 은공예품 연구」,『문화재보존연구』3 (서울역사박물관, 2006), pp. 15-33.

5 정지희,「운현궁 은공예품을 통해 본 왕실미술품제작소 연구-흥원 및 이준용묘 출토품으로 중심으로」,『운현궁 생활유물』10 (서울역사박물관, 2012), pp. 122-135.



廣　告

○本工場에서各色緞屬織造、染色、金銀白銅細工、寶石細工、木工、婦人刺繡、前記各種을韓國所産原料로精密히製造하야宮內府御用品에供하옵고國內紳士의注文을隨求酬應하오며外國에輸出을經營하야利源을發達하기로目的하오니四方僉彦은陸續注文하시믈務望

西部餘慶坊黃土峴新橋

宮內府御用

漢城美術品製作工場

도 3『황성신문』,「한성미술품제작소 광고」, 1909년 3월 6일자 기사

어떻게 변천되고 그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한성미술품제작소의 설립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자료는『황성신문』과『매일신보』이다.『황성신문』 1909년 3월 6일자 한성미술품제작소 광고에는 취급품목과 목적이 잘 나타나 있다(도 3). 광고에 의하면 한성미술품제작소는 직조, 염색, 금은백동세공, 보석세공, 목공, 부인자수 등을 취급하면서 궁내부 御用品을 납품하고 국내 紳士의 주문을 받는 한편 외국에 수출을 도모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13년 6월 이왕직으로 인수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전하고 있는『매일신보』「美術製品의 直營」기사에서도 설립목적을 조선의 고유한 미술품을 제작하고 또 가급적 염가로 판매하여 일반 수요에 응함에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6] 그러므로 한성미술품제작소의 설립목적은 조선 고유의 미술품 제작과 함께 대중 판매에도 비중이 실려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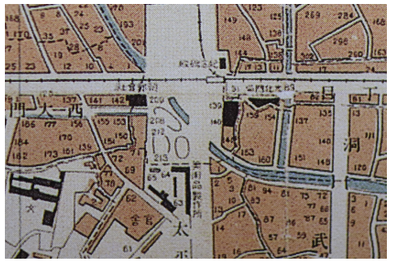
한성미술품제작소는 왕실기물제작소인 동시에 일반 대중에게도 미술품을 판매함으로써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제작소로 규명할 수 있다. 왕실기물제작소라고 단편적으로 이해되어 온 한성미술품제작소의 설립목적과 성격은 재고되어야 한다. 1909년 一進會가 伊藤博文에게 줄 金甁을 주문했다거나 1910년 廣州郡民들이 군수 吳泰泳의 치적을 표하기 위해 은잔을 주문한 사실은 한성미술품제작소가 왕실 외에 일반인이나 단체의 주문을 받았음을 증명해 준다.[7] 한성미술품제작소는 상업적 이익 창출을 위해 도안과 기계를 사용하는 대량생산방식을 도입하였다. 대량생산방식의 도입은 서울역사박물관과 충남역사박물관에 각각 소장된 〈한미명이화형잔탁〉의 경우처럼 세부표현에서 약간 차이가 날 뿐 기형과 문양 등 제작기법이 거의 동일한 제작품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도 4).[8]

6 『每日申報』,「美術製品의 直營」, 1913년 6월 1일자 기사의 해당부분을 아래에 옮긴다.
漢城美術品製作所는 明治四十一年 昌德宮으로부터 基本金 六萬圓의 下賜를 得하여 創立되었는데 其目的하는 바는 朝鮮의 固有한 美術品을 製作하고 且(또) 可及的 廉價로 販賣하여 一般需要에 응함에 在하고(생략)

7 『皇城新聞』,「一進會贈呈品」, 1909년 7월 10일자 기사;『大韓每日申報』,「은잔 보내어」, 1909년 7월 10일자 기사.

8 한성미술품제작소 제작품의 경우 漢美, 漢城美術, 美 세 종류의 각인을 사용하고 있다. 한미각인은 서울역사박물관과 충남역사박물관 소장 이화형잔탁을 예로 들 수 있고, 한성미술 각인은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은제주발, 미

도 4 한미명이화형잔탁 및 각인, 1908-1913, 은, 최대지름 10.3cm, 높이 1.6cm, 충남역사박물관 소장



도 5 〈경성시가도〉 1927, 종이인쇄, 전체 가로 100cm, 세로 95.8cm,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도 6 한성미술품제작소 위치(현재 동화면세점 일대), 2016년 필자 촬영

한성미술품제작소의 위치는 현재 세종로 사거리인 黃土峴이다(도 5, 6).[9] 한성미술품제작소의 건물은 1907년 폐지된 營繕司 건물을 수리하여 사용하였는데 1910년 자료를 참고할 때 공장 건평은 약 370평이었다.[10] 건물 세부에 대한 자료는 드물지만 1910년 3월 8일 화재발생

각인은 개인(서대식) 소장 서양식잔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純銀이라는 純度각인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어 순도각인의 출현은 이왕직미술품제작소 시기에 와서부터라고 생각된다. 각 소장품의 자세한 설명은 정지희,「20세기 전반 한국 은공예품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7) 제4장 20세기 전반 한국 은공예품 현황 p. 138, 145, 149;『일제강점기 은공예품과 제작소』(민속원, 2018) 제4장 일제강점기 은공예품의 현황 p. 166, 168, 174 및 pp. 177-178 참조.

9 『皇城新聞』,「工場付屬」, 1908년 11월 27일자 기사; 정지희, 앞의 논문(2012), p. 128.
한성미술품제작소의 위치 파악을 위해 지적도와 상공자료를 고찰한 결과 한성미술품제작소는 太平通 1정목 63, 64, 65번지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京城市街圖〉(1927)에는 태평통 1정목 63·64·65번지,『京城商工案內』(1929)에는 태평통 1정목 64번지,『京城便覽』(1929과『京城と仁川』(1929)에는 태평통 1정목 65번지,『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33년판, 1935년판에는 태평통 1정목 64·65번지로 기록되어 있다. 지금은 동화면세점 등이 입점한 광화문빌딩이 들어서 있다.

10 『皇城新聞』,「工場建設의 豫定」, 1908년 11월 21일자 기사; 오미일,『한국근대자본가 연구』(한울, 2002), p. 71 〈표

기사의 목공부 난로에서 발생한 불로 응접실과 창고, 칠공장과 단야공장 등 38칸이 소실되었다는 내용으로 건축규모의 단면을 파악할 수 있다.[11]

한성미술품제작소의 조직은 染織部, 金工部, 木工部 3부체제로 시작하였으나 점차 부서가 추가되면서 1911년경에는 적어도 5부체제로 확대되었다. 1910년 2월 製墨部가 신설되고, 1911년 3월에는 陶器部 신설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었다.[12] 이왕직 인계시 한성미술품제작소 제작의 대리석을 처분하는 기사로 보아 늦어도 1913년 상반기경에는 대리석을 취급한 石工部가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13] 한성미술품제작소는 3부체제로 설립된 후 점차 5부체제 또는 6부체제로 확대되었다. 그동안 한성미술품제작소의 운영시기가 1910년으로 설정되어 왔기 때문에 한성미술품제작소의 조직 확대는 이왕직미술품제작소 시기로 오인되었고, 근대공예사 연구에서 한성미술품제작소의 위상은 평가절하 되었다.

한성미술품제작소 확대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석공부와 도기부의 설치이다. 석공부는 조직개편과정에서 잘 언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물자료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14]『매일신보』1913년 10월 28일자「미술품의 대판매」기사를 보면 이왕직에서 한성미술품제작소에서 만들었던 금은보석, 직물, 주조물, 필묵, 대리석 등을 원가로 판매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리석을 다루었던 석공부가 한성미술품제작소 시기에 설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기부는 설치시기를 단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지만 '秘苑磁器'로 불리는 청자의 재현품들이 1918년부터 만들어졌다는『매일신보』기사에 의해 1910년대 후반 이왕직미술품제작소 시기로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15] 그러나 도기부가 비원자기를 생산하기 이전에 청자와 백자 제작법이 연구된 사실이나 工業傳習所에 1908년 陶器科가 신설되고, 1908년 평양에 재현청자공장인 三和高麗燒, 1911년 漢陽高麗燒가 문을 열었던 사실을 감안한다면 한성미술품제작소에도 1918년보다 이른 시기에 도기부가 신설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16] 고려청자 재흥기사가 실린 1911년 3월을 기점으로 가까운 시기에 도기부가 설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같은 시기에 왕실의 보호금이 증액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1911년 2월 18일『순종실록부록』2권의 기사 및『매일신보』「미술공장 확장」1911년 3월 7일자 기사에 1911년부터 1917년까지 7년간 매년 1만 원씩을 한성미술품제작소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17] 왕실의 기부금과 조직의 확장이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지면서 한성미술품제작소의 기반은 더욱 탄탄해졌다. 한성미술품제작소는 1908년 금공부, 목공부, 염직부 3부체제로 시작하여 1910년 제묵부가 설치되고, 1913년 이전에 석공부가 설치되어 5부체제를 갖추었다. 한성미술품제작소가 도기부의 신설 여부에 따라 6부체제로 운영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한성미술품제작소는 설립 후 약 5년 동안 운영되면서 부서를 신설하고 확장하며 조직의 기틀을 다졌다.

2. 이왕직체제로의 전환

1910년대 信行商會, 朝鮮金銀美術館과 함께 京城의 3대 금은세공상회로 불릴 정도로 성장한 한성미술품제작소는 1913년 6월 5일『순종실록부록』에 운영이 어려워져서 한성미술품제작소를 이왕직에서 인수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실렸다.[18] 기사 내용 중에 '출자하였다가 운영이 어려워지자 해당 공장 전부의 재산을 이왕직에 상납하고서'라는 대목이 있어 한성미술품제작소의 이왕직 인수가 운영상 어려움 내지 영업실적 저조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한성미술품제작소의 이왕직체제 전환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봉래와 송병준의 자

2-2〉 공장공업체의 현황 참조.

11 『大韓每日申報』,「미술공장 화재」, 1910년 3월 8일자 기사.

12 『大韓每日申報』,「먹을 제조하다」, 1910년 2월 26일자 기사.
『每日申報』,「美術工場擴張」, 1911년 3월 7일자 기사는 다음과 같다.
漢城美術品製造工場은 今回李王家의 補助金도 增加ᄒᆞ고 其규모를 擴張ᄒᆞ되 前農商工部事務官 小川鶴治氏가 專務取締가 되야 經營의 任을 當ᄒᆞ게ᄒᆞ고 高麗磁器等도 漸次 再興ᄒᆞ기를 計劃ᄒᆞᆫ터라이라더라.

13 『每日申報』,「미술품의 大賣出」, 1913년 10월 28일자 기사를 옮기면 아래와 같다.
경성 신교통 한성미술품제작소에서는 금년 육월 이왕직으로부터 직접 경영하던 바 今般前 경영자시대의 製作品이 多數함으로 金銀寶石, 織物, 鑄造物, 筆墨, 大理石 등을 殆히 原價同樣으로 去廿三日부터 來三十日까지 일반에게 판매할 뿐 아니라 一圓에 敬物券을 送하여 好況을 呈한다더라.

14 서지민,「이왕직미술품제작소 연구:운영과 제작품의 형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p. 20.
석공부가 이왕직미술품제작소 시기에 새로 설치되었다는 내용과 벼루 등의 제작품이 소개된 바 있다.

15 최공호, 앞의 논문 (1989), p. 104; 앞의 논문 (2000), p. 165.
엄승희,「일제시기 재한일본인(在韓日本人)의 청자 제작」,『한국근현대미술사학』13 (2004), p. 159.
『每日申報』,「賣買가 잘 되는 美術品製作所」, 1919년 4월 3일자 기사.

16 엄승희,「청자 재현 붐」,『한국미술 100년』(국립현대미술관, 2006), p. 171.
2018년 일본 오사카동양도자박물관에서 개최된〈고려청자전〉에서 이왕직미술품제작소 재현청자의 시기를 1918년이 아닌 1915년경-1920년대로 잡은 점도 주목된다. 大阪東洋陶磁博物館,『高麗青瓷』(2018), p. 22 및 pp. 290-291.

17 『純宗實錄附錄』2권,「한성미술품제작공장 보호금으로 1만원을 기부할 명령서를 내려 보내다」, 1911년 2월 18일 2번째 기사.

18 朝鮮總督府,『京城商工業調査』(1913), p. 34; 靑柳南冥,『新撰京城案內』(朝鮮硏究會, 1913), pp. 198-199;『純宗實錄附錄』4권,「한성미술품제작공장을 이왕직으로부터 인수하다」, 1913년 6월 5일 2번째 기사.

금 도용이다. 1909년 3월과 4월『대한매일신보』에 연이어 이봉래와 송병준의 왕실 재산 도용 기사가 게재되었다. 1909년 3월은 한성미술품제작소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시점이고 이때부터 한성미술품제작소의 왕실자금이 이봉래와 송병준에 의해 도용되고 있었다.[19] 두 사람의 자금 도용은 한성미술품제작소의 운영 악화를 초래하였다. 한성미술품제작소는 애초부터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로 시작되었다. 한성미술품제작소의 이왕직체제로 전환은 영업실적의 저조가 아니라 이봉래와 송병준의 자금 도용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大韓每日申報』「또먹엇슨」 1909년 3월 27일자 기사

송병쥰이가 ᄂᆡ부대신으로 잇슬 때에 궁ᄂᆡ부 소관 미슐품 공쟝경비 십만 원 즁에 륙만 원을 가지고 일본에 갓다더라.

『大韓每日申報』「리씨불츙」 1909년 4월 9일자 기사

한셩미슐품 제조공쟝 리ᄉᆞ쟝 리봉릭씨ᄂᆞᆫ 태황뎨폐하씌 륭슝ᄒᆞᆫ 은총으로 부귀가 극도에 달ᄒᆞ엿ᄂᆞᆫᄃᆡ 보답ᄒᆞᆯ 싱각은 업고 황실직산을 도적ᄒᆞ여 소위 미슐공쟝을설립ᄒᆞ고 송병쥰의 운동비를 슈응코져ᄒᆞ여 일본미슐을 시찰ᄒᆞᆫ다ᄒᆞ고 병쥰으로 더브러 황실직정을 비밀히 됴사ᄒᆞᆫ다ᄂᆞᆫ 젼셜이 잇다더라.

이 기사는 한성미술품제작소의 설립과 변천과정에 숨어 있던 송병준의 존재도 알려준다. 고종의 강제퇴위와 국권피탈에 앞장 선 대표적인 친일인물인 그는 왕실 자금뿐만 아니라 한성미술품제작소 설립 발기인이자 친구인 김시현이 사망한 후 그의 재산을 빼돌려 한성미술품제작소를 더욱 장악할 수 있었다.[20] 그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한성미술품제작소의 운영에 참여한 사실은 앞서 언급한『京城商工業調査』와『京城案內』에서도 확인된다.『경성상공업조사』에는 송병준이 한성미술품제작소의 공장주로 소개되어 있으며,『경성안내』에는 송병준이 드러나지 않도록 참여하였다고 기록되었다.[21] 송병준은 한성미술품제작소 초기부터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으며, 한성미술품제작소의 이왕직체제 전환에 큰 역할을 하였다.

19 한성미술품제작소 광고의 대부분이『皇城新聞』1909년 3월부터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지희, 앞의 논문 (2017), p. 59; 앞의 책 (민속원, 2018), p. 60.

20 김시현(?-1911)은 경기도 개성 출신으로 白木廛을 경영하며 부를 축적하였다. 송병준과 절친한 관계로 일진회 회계를 맡았었다.

21 朝鮮總督府, 앞의 책(1913), p. 34; 石原留吉,『京城案內』(京城協贊會, 1915), p. 163.

〈 표 1 〉 1911년 한성미술품제작소 생산 및 판매현황

생산품	합계	花甁	香爐	盃類	銀雜器	金雜器
생산수량(점)	3,677	156	119	442	2,912	48
판매수량(점)	3,213	98	82	401	2,604	28
생산가격(원)	47,315	10,732	3,581	3,190	27,282	2,530
판매가격(원)	40,828	7,866	3,245	2,885	24,634	2,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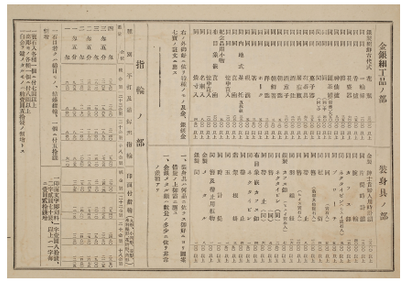
한성미술품제작소의 영업실적은『경성상공업조사』(1913)에 실린 1911년 현황을 참고할 수 있다(표 1). 당시 한성미술품제작소는 화병, 향로, 주기나 다기 등의 잔류, 은기와 금기 등을 생산하였다. 총 생산 및 판매가격은 약 4-5만 원 정도였으며, 주요 판로는 이왕직, 관아, 은행, 회사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3,677점을 생산하고 3,213점을 판매하여 생산량 대비 약 87%의 판매실적을 보이고, 판매가격은 생산가격 대비 약 86%를 차지하고 있다. 화병과 향로는 각각 63%와 69%의 판매량으로 생산가격의 73%와 91%의 높은 수익을 내고 있고, 배류와 은잡기는 모두 90% 이상의 판매 및 수익을 보이고 있으며, 금잡기는 58%의 판매로 87%의 수익을 내고 있다. 한성미술품제작소의 수익구조가 흑자는 아니었지만 왕실자금의 도용과 1911년부터 1917년까지 매년 1만 원씩의 왕실 추가 지원 사실을 감안할 때 한성미술품제작소가 갑작스럽게 이왕직체제로 전환될 정도로 심각한 재정악화 상태는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왕실의 지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성미술품제작소는 조직과 건축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조선 금속세공업계 3대 세공상회로 불리고 있었다는 점도 이에 대한 반증이 된다.

Ⅲ. 이왕직미술품제작소의 성장과 상업화

1. 조직의 확대와 성장

이왕직제체로 개편된 이왕직미술품제작소는 한성미술품제작소 조직을 유지하면서 운

도 7 미명사각나전함 및 미각인, 1913-1922, 나무, 가로 28.5cm, 세로 27.1cm, 전체높이 32.2cm,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도 8 이왕직미술품제작소 제작품목록, 1919, 종이, 가로 26.9cm, 세로 18.8cm,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영되었다.[22] 『경성안내』에는 이왕직미술품제작소에 金工部, 鑄金部, 染織部, 筆墨部, 石工部 5부가 있다고 적혀 있다. 그런데 설립시기부터 운영되던 목공부가 빠져 있고, 주금부가 언급되어 있다. 주금부는 근래에 錫細工을 개시하였다고 하여 1915년경부터 朱錫세공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준다.[23] 목공부가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왕직미술품제작소 제작의 많은 나전칠기가 남아 있어 목공부의 존재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주금부는 금공부에 속했을 가능성이 크고 도기부가 설치되었으므로 이왕직미술품제작소는 6부체제로 운영되었다고 생각된다(도 7).

이왕직미술품제작소 조직 변화에서 주목되는 점은 조직의 세분화와 공장의 확대이다. 이를 알려주는 자료로 『이왕직미술품제작소 제작품목록』이 있다(도 8). 이 제작품목록에 등장하는 金銀細工品部, 裝身具部, 指輪部는 크게 金工部의 범주에 속하고, 부서명은 나오지 않지만 松煙製와 筆之部가 연이어 나오고 있어 筆墨部로 묶을 수 있다. 금공부는 금은세공부, 장신구부, 지륜부 등으로 구분되었으며, 필묵부도 제묵부와 필지부로 세분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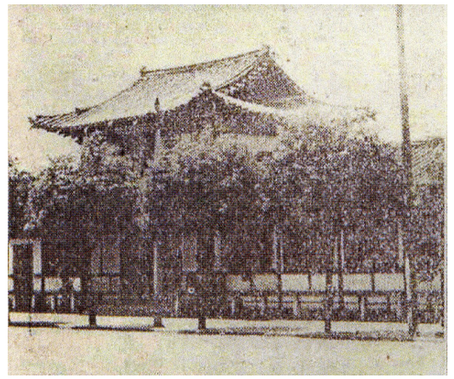
이왕직미술품제작소의 변화는 『매일신보』 1913년 6월 1일자 기사의 '기업부를 개량확장하여'라는 구절을 참고할 수 있다.[24] 1915년경 이왕직미술품제작소는 대지면적은 약 1,400평,

22 1915년과 1916년 李王職事務分掌規程 제4조에 개편된 이왕직미술품제작소는 회계과 소관으로 기록되어 있다. 『純宗實錄附錄』 6권 1915년 3월 24일 2번째 기사; 7권 1916년 6월 10일 1번째 기사.

23 石原留吉, 앞의 책, p. 164.

24 『每日申報』, 「美術製品의 直營」, 1913년 6월 1일자 기사. 해당부분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생략) 又同所內에 기업부을 개량확장하여 精巧한 鮮人側의 絹織物을 産出하여 年年 支那로부터 多額의 輸入을 仰하는 物品을 幾分防止하여 國益을 助成할 계획이라더라.

건축 규모는 2,000평, 건물은 500평 규모의 조선식 건물로 신축되었다.[25] 『京城と仁川』(1929), 『大京城都市大觀』(1937) 등에 소개된 조선미술품제작소 사진은 이때 신축된 건물이다(도 9).



도 9 조선미술품제작소 사진, 『大京城都市大觀』, 1937,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이왕직미술품제작소의 생산고는 시정오년기념조선물산공진회 이후 주문이 크게 증가하여 1911년에 47,315원이었던 것이 1915년에는 100,000원, 1921년에는 상반기에만 106,550원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26] 한성미술품제작소 시기와 비교하면 이왕직미술품제작소는 생산과 수익 면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따라서 이왕직미술품제작소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영업상의 어려움을 겪었다기보다는 건축규모, 조직, 생산고, 판매고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상당한 성장세를 구축하였다.

2. 시정오년기념조선물산공진회와 상업화

이왕직미술품제작소 성장의 가장 큰 계기는 1915년 경복궁에서 개최된 시정오년기념조선물산공진회이다.[27] 이왕직미술품제작소는 공진회를 겨냥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한편 공진회가 열리기도 전에 출품작으로 청동제 周式大花瓶, 中花瓶, 조선고대건축 置物, 나전칠기, 목조인형 등을 제작하였다. 출품작 제작에 수 명의 內地人 감독자와 조선인 직공 120-130명이 담당할 정도로 이왕직미술품제작소는 공진회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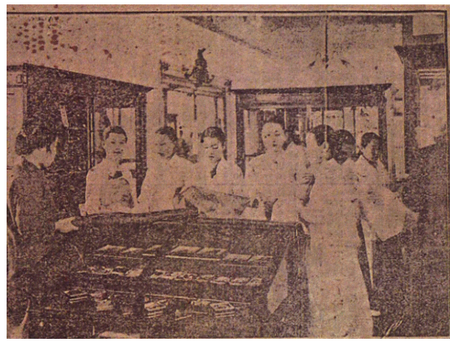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에 활발하게 개최된 박람회는 세계열강들의 식민지배 정당화를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과시하고, 상품 판매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었다. 이왕직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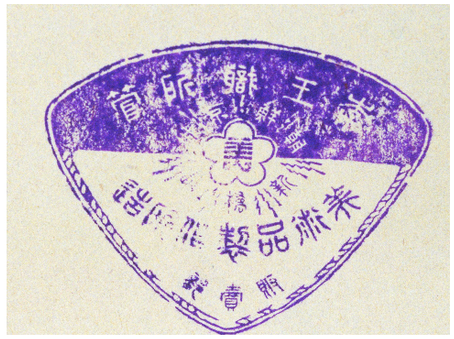
25 『京城府官內地積目錄』 1917년, 1927년판 참조; 『每日申報』, 「단신」, 1915년 8월 4일자 기사.

26 『每日申報』, 「부활되는 고미술의 정수」, 1916년 3월 30일자 기사; 「美術製品 成績, 상반기 판돈이 10만 6천 5백여 원에 달」, 1922년 1월 24일자 기사.

27 시정오년기념조선물산공진회는 조선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식민통치의 정당성과 성과를 선전하기 위해 1915년 9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경복궁에서 개최되었다.

28 『每日申報』, 「共進會와 美術品, 美術品製作所의 出品物」, 1915년 6월 17일자 기사.





도 10 이왕직미술품제작소 진열장 내부 광경, 『매일신보』, 1916년 3월 30일 사진기사
도 11 이왕직미술품제작소 판매부 스탬프, 1913-1922, 종이, 일본 文化學院 복식박물관 소장

술품제작소는 공진회를 계기로 영업이익을 적극적으로 증대하고자 했다고 보여진다. 공예품이 식산흥업과 결부된 미술품으로 인식되고, 박람회장의 미술품 판매가 시대적 과제였던 당시 상황은 이왕직미술품제작소와 조선물산공진회의 강력한 결합을 가져왔으리라 생각된다.[29]

이왕직미술품제작소는 본격적인 상업화 전략을 펼쳤다. 첫째, 이왕직미술품제작소는 상설판매소인 진열장을 설치하였다. 진열장 설치는 『경성안내』에 언급되어 있고, 『매일신보』 1916년 3월 30일 사진기사에서 내부 전경을 볼 수 있다(도 10).[30] 사진 속 이왕직미술품제작소 진열장은 가지런히 정렬된 물품과 포장지, 기생들로 가득한 광경이다. 이왕직미술품제작소는 이전의 주문 판매방식에서 벗어나 상시 물품을 직접 눈으로 보고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하고 판매부를 두었다. 판매부는 일본 文化學院 복식박물관 소장 이왕직미술품제작소 포장지에서 찍힌 '李王職 所管 朝鮮 京城 新橋通 美術品製作所 販賣部'라는 스탬프에서 확인된다(도 11).[31]

둘째, 등록상표의 사용이다. 이왕직미술품제작소가 왕실을 상징했던 이화문을 상표로 사용한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으나 상표로서의 이화문이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 게다가 등록상표라는 명확한 개념보다는 이왕직미술품제작소를 나타내는 표식이나 상징으로 이해되어 왔다.[32] 그 해결의 실마리는 공진회 관련 사진에서 찾아진다.

도 12 이왕직미술품제작소 등록상표, 『매일신보』, 「공진회안리왕직미술제작소의 출품」, 1915년 9월 27일자 사진

공진회가 한창 진행 중인 1915년 9월 27일자 『매일신보』 「공진회안리왕직미술제작소의 출품」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면 청동대향로 앞에 놓인 안내판에 선명하게 보이는 이화형美 상표가 있다(도 12). 이화형은 이왕직미술품제작소의 연원이 왕실에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고, 美자는 미술품 또는 미술품제작소를 의미한다. 공진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했었을 것이므로 사진에 등장하는 형태가 이왕직미술품제작소의 등록상표로 생각된다. 이화문 등록상표는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조선

도 13 이화형 등록상표, 조선총독부명오동문잔 상자 內, 1913-1922, 종이, 지름 2.8cm,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도 14 미명이화문화형잔 및 각인, 1913-1922, 은, 입지름 6.9cm, 굽지름 3.1cm, 높이 2.9cm,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29 19세기 후반 20세기 전반 박람회와 공예품의 미술품으로서의 인식에 대해서는 정지희, 앞의 논문(2017), pp. 240-243.; 앞의 책, pp. 286-290.

30 石原留吉, 앞의 책, p. 164.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공장의 현황을 기록하면 공장의 총 평수가 약 2,000평, 조선식 건물이 500평, 밖에 진열장과 사무실이 있으며, 공장 안에 금공, 주금, 염직, 필묵, 석공 5부(部)로 나누어져(생략)
『每日申報』, 「리왕직미술공장 진렬장에서 기성들의 물건 흥정ᄒᆞᄂᆞᆫ 광경」, 1916년 3월 30일자 사진.

31 국립고궁박물관, 『덕혜옹주』(2012), p. 152 사진 및 정지희, 앞의 책, p. 176.

32 이화문 안에 美자를 넣은 이왕직미술품제작소의 등록상표는 '상징' 또는 '표식'이라는 용어로 이해해도 무리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는 文章 또는 문양으로서의 이화문과의 경계가 모호하여 이화문이 있는 것은 모두 이왕직미술품제작소 제작품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판매를 위한 상품에 사용하였다면 상징이라는 모호한 용어보다는 '상표'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총독부명오동문잔 상자에 부착된 종이상표나 미명이화문화형잔과 같은 각인의 형태로도 나타난다(도 13, 14). 그러므로 이왕직미술품제작소의 본격적 상업화는 조선물산공진회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밖에 이왕직미술품제작소가 호황을 이룰 수 있었던 여건으로 수요자의 증가와 식민지관광의 성행이 있다. 이왕직미술품제작소의 주고객은 內地人으로 불리는 재조선일본인이었다.[33] 1914년 59,075명이었던 경성부내 일본인 수는 1920년에는 65,617명, 1925년 88,875명으로 증가하다 1930년대는 10만 명을 넘어섰다.[34] 부내 일본인의 증가로 인해 이왕직미술품제작소 수요자도 증가하였다. 또한 1910년대 중반 이후 철도의 발달과 조선과 만주 등 식민지 관광이 유행하였다. 이왕직미술품제작소는 식민지 관광의 주요관광지로서 소개되었으며, 관광객은 기념품으로 이왕직미술품제작소의 제작품을 구입하였다.[35] 그러므로 이왕직미술품제작소는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 개최, 내지인 증가와 식민지관광의 성행에 따른 수요자의 확대를 기반으로 본격적 상업화를 추구하였다.

Ⅳ. 조선미술품제작소 출범과 해체

1. 이왕직미술품제작소 매도와 富田儀作

본격적 상업화 전략으로 호황을 누리던 이왕직미술품제작소는 1922년 2월 갑자기 매도가 결정되었다. 매수자는 加藤巡吉, 富田儀作(1858-1930), 進辰馬, 조진태, 백완혁, 김한규 등이고, 매도금액은 터무니없이 낮은 29만 원이었다.『매일신보』1922년 2월 3일자 기사에 의하면 그들은 순종과 조선총독부의 결재를 맡아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자본금 100만 원의 주식회사를 창립할 계획을 세웠다.[36] 계약 내용도 총 2만 주의 주식 중 5천 주를 이왕직에서 소유하지만 5년간 무배당으로 한다는 불리한 조건이었다.[37] 이 소식이 전해지자 같은 날 朝鮮金銀工組合은 이왕직미술품제작소의 매도를 조선 일부유력자와 일본인과의 불경한 관계로 규정하고 동맹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극렬한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38]

그러나 이왕직미술품제작소는 1922년 8월 15일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고 富田儀作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미술품제작소가 출범하였다. 그는 남대문통 3정목에 위치한 富田商店 본점에 창립사무소를 설치하고, 4월에 발기인회를 개최하여 주식의 할부와 불입시기 등을 결정하였으며, 5월에 村井文太郎을 전무로, 金子俊雄을 지배인으로 추천하여 8월 16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39]

한창 성장하던 이왕직미술품제작소의 갑작스런 매도의 내재적 배경은 富田儀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그는 총독부와의 결탁을 통해 이익을 추구한 대표적 식민자본가로 일찍부터 진남포 삼화고려소, 서울 한양고려소, 통영칠공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등 조선 전 지역을 대상으로 조선미술품 및 특산품 사업을 주도하였다.[40] 그는 이미 조선의 특산품 사업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그에게 경성의 특산품으로 알려진 은공예품은 분명 매력적인 품목이었을 것이다.『개벽』과『별건곤』에 의하면 1920-1930년대 이왕직미술품제작소를 비롯한 종로 세공상회에서 생산되는 은공예품은 경성의 특산품이었다.[41] 이왕직미술품제작소의 주요 생산품목이었던 은공예품은 수요 증가에 따라 영업실적이 향상되고 있었다. 만약 그가 이왕직미술품제작소를 인수한다면 경성의 특산품 사업을 손쉽게 장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조선특산물 산업의 제왕이라는 그의 입지를 더욱 견고하게 굳힐 수 있는 계기이기도 했다. 즉 영업실적

33 『每日申報』「復活되는 古美術의 精粹」1916년 3월 30일자 기사에서 이왕직미술품제작소 수요자의 약 97-98%가 내지인이라고 언급되었다.

34 이준식, 「일제강점기 경성부의 공간구조 변화와 인구변동-1925~1935년의 민족별 거주지분리를 중심으로-」, 『향토서울』69 (2007), p. 310.

35 일제강점기 조선철도국에서 발행한『京城』,『京城案內』등 관광안내책자에 경성의 명소로 이왕직미술품제작소가 지속적으로 소개되었다.

36 『每日申報』, 「美術品製作所 賣渡 決定」, 1922년 2월 3일자 기사.

37 『每日申報』, 「美術品製作所, 株式 計劃」, 1922년 2월 15일자 기사.

38 『東亞日報』, 「美術製作反對」, 1922년 2월 15일자 기사.

39 조선미술품제작소의 창립과정은『每日申報』에 꾸준히 게재되었으며, 창립총회는 京城俱樂部에서 열렸다.『每日申報』, 「美術製作所 進陟」, 1922년 2월 28일자 기사;「美術製作所 進捗」, 1922년 4월 20일자 기사;「美術製作 株式 募集」, 1922년 5월 14일자 기사;「朝鮮美術創立總會」, 1922년 8월 6일자 기사;「美術品製作所 成立」, 1922년 8월 19일자 기사.

40 富田精一, 우정미 譯,『식민지 조선의 이주일본인과 지역사회 진남포의 도미타 기사쿠』(국학자료원, 2013), p. 209. 이가연, 「진남포의 '식민자' 도미타 기사쿠(富田儀作)의 자본축적과 조선인식」,『지역과 역사』38 (2016), pp. 401-416.

41 개벽사, 「京城의 特産」,『開闢』제48호, 1924년 6월 1일자 기사;「京城名物集-工産品의 名物-」,『別乾坤』제23호, 1929년 9월 27일자 기사.

이 향상되고 있던 이왕직미술품제작소가 갑작스럽게 조선미술품제작소로 전환된 것은 조선총독부와 결탁한 富田儀作의 책략 때문이었다. 『매일신보』 1922년 2월 3일자 「미술품제작소 매도 결정」 기사 내용 중 '총독부측의 결재 등 일절의 手續을 종료하고'라는 구절은 이러한 배경을 뒷받침 해준다.

2. 조선미술품제작소의 운영과 쇠퇴 원인

조선총독부의 비호 아래 富田儀作에 의해 출범한 조선미술품제작소는 주식회사체제로 민영화되었다. 「미술품제작소 매도 결정」 기사와 『朝鮮銀行會社要錄』으로 볼 때 富田儀作을 중심으로 村井文太郎, 進辰馬, 이병학, 백완혁, 김한규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그 중에서도 富田儀作은 이왕직 다음으로 많은 3,000주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조선미술품제작소 운영의 실세였다.[42]

도 15 조선미술품제작소 포장지, 종이, 1922-1936, 가로 34.2cm, 세로 23.6cm,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그는 1922년 2월 14일자 『매일신보』에서 조선공예의 발전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이왕직미술품제작소의 趣意를 따라 조선미술공예의 장려와 靑年徒弟를 양성하며, 해외무역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조선미술품제작소의 취지를 밝혔다.[43] 조선미술품제작소는 조선 왕실의 상징인 이화문을 상표에 이용하면서 이왕직미술품제작소를 계승하는 것처럼 공표하였으나, 실제로는 상품적 가치를 내세워 이윤 추구에 이용하였다. 조선미술품제작소에서 사용한 상표는 조선미술품제작소 제작품과 포장지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도15). 조선미술품제작소는 미술공예품뿐만 아니라 미술공업품 및 원료의 제조와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고도 밝히고 있다. 조선미술품제작소의 미술공업품과 원료 취급은 이왕직미술품제작소보다 한층 강화된 이익추구 방편이었다.

그러나 1920년대 후반 이후 조선미술품제작소의 운영실적은 눈에 띄게 감소된다. 인수

42 中村資郎, 『朝鮮銀行會社要錄』(東亞經濟時報社), 1923년版-1935년版 참조.

43 『每日申報』, 「美術品製作所 讓受事情, 發起人 總代 富田儀作氏 談」, 1922년 2월 14일자 기사.

이후 4~8%대를 유지하던 조선미술품제작소의 배당률은 1929년에 완전히 사라졌으며, 1930년에는 자본금과 불입금이 절반 수준까지 하락하고 있다.[44] 자본과 이익이 급감한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1929년 세계대공황 여파로 인한 수익의 악화이다. 1929년 미국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시작된 세계대공황은 일본에도 큰 타격을 주었다. 그 파장은 공업생산뿐만 아니라 농업, 금융업 등 경제 전반에 미쳤는데 일본과 조선을 주요사업지로 삼고 있던 富田儀作도 손해를 피할 수 없었다.[45] 일본은 군수품 생산과 식민지 건설로 공황을 타개하고자 했는데 금속공예품 생산이 주력이던 조선미술품제작소도 심각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조선미술품제작소뿐만 아니라 종로의 세공상회도 매상이 급감했다.[46]

둘째, 富田儀作의 사망이다. 1930년 그의 사망은 세계대공황으로 고전하던 조선미술품제작소가 흔들리는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1933년 자본금은 262,500원으로 이전의 1/4 수준으로 떨어지고, 불입금도 437,500원에서 절반 수준인 262,500원대로 줄어들어 조선미술품제작소는 심각한 운영난에 부딪히게 되었다.[47] 조선미술품제작소는 富田儀作라는 구심점을 잃음으로써 쇠퇴가 가속화되었다.

도 16 화신상회(종로 2정목 5번지, 현재 종로 2가), 『和信五十年史』, 화신산업주식회사, 1977

셋째, 종로 은세공상회의 성장이다. 종로 은세공상회는 이왕직미술품제작소 연구에 밀려 그간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10년대부터 信行商會, 和信商會 등 종로에 위치한 세공상회가 번창하기 시작하면서 이왕직미술품제작소의 매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도 16).[48] 1920년

44 中村資郎, 앞의 책, 1923년판-1935년판 참조.

45 이가연, 앞의 논문, p.414.
富田儀作은 조선의 쌀, 고려자기, 사과 등 조선물산의 일본 판로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 1923년 5월 大阪에 조선물산판매소를 설립하는 한편 1924년에는 조선물산협회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일본인을 주고객으로 삼았던 그의 사업은 일본에 미친 경제대공황의 영향을 받았다.

46 『每日申報』, 「京城市內의 一年中銀需要高」, 1931년 9월 5일자 기사.

47 中村資郎, 위의 책, 1923년版-1935년版 참조.

48 종로 은세공상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정지희, 앞의 논문 (2017), pp. 95-118.; 앞의 책 (2018), pp. 114-142.; 「일제강점기 은세공상회를 통해 본 종로의 공간성과 형성배경」, 『서울학연구』 74 (2019), pp. 33-80.

대에 와서는 생산액의 역전현상이 발생하여 1923년과 1925년 조선미술품제작소의 생산액이 56,404원과 84,265원인데 반해 종로 세공상회의 대표주자인 화신상회는 1923년 101,640원, 1925년 215,000원으로 2-3배 차이가 나고 있다.[49] 종로 세공상회와의 경쟁구도에서 우위 상실은 조선미술품제작소가 쇠퇴하는 원인이 되었다. 결국 조선미술품제작소는 1936년 7월 13일에 공식 해체되고, 부지는 동양척식회사에 매도되었다.[50]

Ⅴ. 맺음말

이상으로 한성미술품제작소가 1908년 설립되어 이왕직미술품제작소-조선미술품제작소로 변천하는 과정에 주목하면서 한성미술품제작소의 설립취지, 운영기간, 조직의 변화, 이왕직미술품제작소의 성장 및 조선미술품제작소 체제로 바뀌게 되는 내재된 배경을 규명하였다. 그 결과 한성미술품제작소는 약 5년 동안 운영되면서 조직의 기틀을 마련하고 미술품의 대중화와 상업화와 직결된 근대적 제작소임을 확인하였다.

한성미술품제작소는 조선의 고유한 미술의 진작 및 일반판매를 통한 수익창출을 위한 상업적 목적을 위해 설립되었다. 한성미술품제작소는 1913년 6월 이왕직으로 인수되기 전까지 운영되었으며, 조직은 염직부, 목공부, 금공부 3부에서 필묵부, 석공부가 추가되면서 점차 확장되었다. 한성미술품제작소가 이왕직으로 인수된 배경은 지금까지 운영 악화로 알려져 왔으나 실제로는 본격적 운영시점인 1909년 3월 송병준과 이봉래의 왕실자금 도용에서 비롯되었다.

이왕직체제로 전환된 이왕직미술품제작소는 왕실의 후원과 1915년 시정오년조선물산공진회를 계기로 조직과 공장이 확대되고 본격적 상업화 전략으로 매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왕직미술품제작소의 주력 품목이었던 은공예품이 경성의 특산품으로 알려지고 식민지 관광이 성행하면서 이왕직미술품제작소는 성장기에 도입하였다. 그런데 이왕직미술품제작소는 1922년 2월 갑작스럽게 매도되어 조선미술품제작소가 출범하였다.

조선미술품제작소 출범의 내재적 배경은 조선총독부와 결탁한 富田儀作의 책략에 의한 것이었다. 당시 조선특산품 산업을 장악했던 富田儀作은 경성의 특산품인 은공예품을 생산하던 이왕직미술품제작소를 인수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조선 특산품 산업의 일인자가 되었다. 그러나 조선미술품제작소는 1929년 세계대공황, 1930년 富田儀作의 사망, 종로 세공상회의 번성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로 1936년 7월 해체되었다.

한성미술품제작소의 설립과 변천과정은 한국 근대 공예사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성미술품제작소는 변천과정 전 시기를 통해 왕실기물제작소인 동시에 미술품의 대중화 및 상업화와 직결된 제작소였다. 한성미술품제작소는 공예품 산업화의 견인차 역할을 함으로써 근현대 공예사 전환기의 서막을 열었다. 또한 한성미술품제작소의 변천과정의 내재적 배경은 식민지라는 시대적 특수성과 결부된 역사의 소산물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한성미술품제작소와 변천에 대한 객관적이면서도 중층적인 이해가 절실하다. 필자는 지금까지 통칭되던 이왕직미술품제작소 대신 한성미술품제작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며, 앞으로도 한성미술품제작소의 제대로 된 위상과 의의를 찾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주제어(key words)_한성미술품제작소(漢城美術品製作所, Hanseong Craftwork Manufactory), 이왕직미술품제작소(李王職美術品製作所, Yi Wang-jik Craftwork Manufactory), 조선미술품제작소(朝鮮美術品製作所, Joseon Craftwork Manufactory), 송병준(宋秉畯, Song Byeong-jun), 부전의작(富田儀作, Domita Kisaku)

▌투고일 2019년 5월 30일 | 심사개시일 2019년 6월 14일 | 심사완료일 2019년 7월 6일 ▌

49 京城商工會議所, 『京城工場表』, 1923년판 및 1925년판.

50 『朝鮮日報』, 「美術品製作所 解散하기로 決定」, 1936년 7월 15일자 기사; 『東亞日報』, 「美術品製作所에 東拓이 옮아 新築, 1936년 7월 15일자 기사.

참고문헌

1. 사료 · 신문 · 지도

『開闢』
『大韓每日申報』
『東亞日報』
『每日申報』
『別乾坤』
『純宗實錄附錄』
『朝鮮日報』
『皇城新聞』
『京城府官內地積目錄』1917년, 1927년
〈京城市街圖〉
〈地番區劃入大京城精圖〉

2. 한국어 문헌

국립고궁박물관,『덕혜옹주』, 2012.
富田精一, 우정미 譯,『식민지 조선의 이주일본인과 지역사회 진남포의 도미타 기사쿠』, 국학자료원, 2013.
서지민,「이왕직미술품제작소 연구:운영과 제작품의 형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엄승희,「일제시기 재한일본인(在韓日本人)의 청자 제작」,『한국근현대미술사학』13, 2004.
_____,「청자 재현 붐」,『한국미술 100년』, 국립현대미술관, 2006.
오미일,『한국근대자본가 연구』, 한울, 2002.
이가연,「진남포의 '식민자' 도미타 기사쿠(富田儀作)의 자본축적과 조선인식」,『지역과 역사』38, 2016.
이준식,「일제강점기 경성부의 공간구조 변화와 인구변동-1925~1935년의 민족별 거주지분리를 중심으로-」,『향토서울』69, 2007.
정지희,「이준용묘 출토 은공예품 연구」,『문화재보존연구』3, 2006.
_____,「운현궁 은공예품을 통해 본 왕실미술품제작소 연구-흥원 및 이준용묘 출토품으로 중심으로」,『운현궁 생활유물』10, 서울역사박물관, 2012.
_____,「20세기 전반 한국 은공예품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_____,『일제강점기 은공예품과 제작소』, 민속원, 2018.
_____,「일제강점기 은세공상회를 통해 본 종로의 공간성과 형성배경」,『서울학연구』74, 2019.
최공호,「李王職美術品製作所 硏究」,『古文化』34,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89.
_____,「韓國 近代工藝史 硏究: 제도와 理念」,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_____,『한국 근대 공예사론 산업과 예술의 기로에서』, 예술문화, 2008.

3. 동양어 문헌

京城商工會議所,『京城工場表』, 1923년 및 1925판.
中村資郎,『朝鮮銀行會社要錄』, 東亞經濟時報社, 1923년판-1935년판.
萩森茂,『京城と仁川』, 大陸情報社, 1929.
靑柳南冥,『新撰京城案內』, 朝鮮硏究會, 1913.
小川鶴治,「朝鮮の美術工藝」,『朝鮮』38, 朝鮮雜誌社, 1911.4.
大阪東洋陶磁博物館,『高麗靑瓷』, 2018.
石原留吉,『京城案內』, 京城協贊會, 1915.
朝鮮總督府,『京城商工業調査』, 1913.
朝鮮博覽會京城協贊會,『京城商工案內』, 1929.
朝鮮新聞社,『大京城都市大觀』, 1937.
弘文社,『京城便覽』, 1929.

국문초록

한성미술품제작소는 1908년 조선의 고유한 미술의 진작 및 일반 판매를 통한 이윤 추구를 위해 설립되었다. 1913년 6월 이왕직으로 인수되기 전까지 한성미술품제작소는 조직을 3부 체제에서 적어도 5부 체제로 확장하면서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친일세력이었던 송병준과 이봉래의 왕실자금 도용으로 인해 이왕직으로 인수되면서 이왕직미술품제작소로 전환되었다.

이왕직미술품제작소는 1915년 시정오년조선물산공진회와 식민지 관광의 성행을 계기로 성장기에 도입하였다. 이왕직미술품제작소는 조직이 세분화되고, 공장규모는 확대되었으며, 본격적인 상업화 전략을 펼쳤다. 그러나 이왕직미술품제작소는 조선총독부의 묵인 아래 식민자본가이자 조선 특산품 산업의 거두였던 富田儀作의 책략으로 매도되어 조선미술품제작소가 되었다.

조선미술품제작소는 이왕직미술품제작소를 계승한다고 표명하였으나, 조선 왕실의 상징인 이화문을 상표로 이용하였다. 조선미술품제작소는 1929년 세계대공황 여파와 富田儀作의 사망, 종로 세공상회의 번성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1936년 7월 해체되었다.

한성미술품제작소는 왕실기물제작소인 동시에 미술품의 대중화 및 상업화와 직결된 제작소로서 공예품 산업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며, 한성미술품제작소의 변천과정이 식민지라는 시대적 특수성과 결부된 역사의 소산물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Abstract

Hanseong Craftwork Manufactory: Establishment and Its History

Jeong, Ji-hui*

The establishment of the Hanseong Craftwork Manufactory was to promote Korean traditional arts and craftwork and also to gain profits through usual sales. Expanding its organization, the Manufactory had consolidated its position until June 1913 when the Yiwangjik, or the Office of the Yi Royal Family, took over the workshop. The take-over of its ownership involved pro-Japan collaborators, Song Byeong-jun (1857-1925) and Yi Bong-rae (d. 1916), who misappropriated royal funds; and in consequence the institution was changed Yiwangjik Craftwork Manufactory.

The Yiwangjik Craftwork Manufactory has entered a maturation phase, as tourism to colonial Korea has grown up since the Joseon Industrial Exposition took place in 1915 marking the fifth anniversary of the Japanese occupation. The Manufactory's organization has become elaborate; its workshop has increased in size; and commercial strategies have come to the fore of the institution's agendas. With the connivance of the Japanese Govenor-General of Joseon, however, the Yiwangjik Craftwork Manufactory fell into the hands of Tomita Kisaku (1858-1930), the Japanese colonial enterpreneur and mogul of Joseon local-specialties industry; and again its name changed to Joseon Craftwork Manufactory.

In spite of its announcement to inherit and continue the legacy of the Yiwangjik Craftwork Manufactory, the Joseon Craftwork Manufactory merely took commercial advantage of the regalia of the Joseon royal house as the workshop's trademarks. And yet the Manufactory was not able to escape from financial difficulties that the Great Depression of 1929, the death of Tomita Kisaku, and the emergence of competing craft stores in Jongno brought together. The business decline led

* Curator, Seoul Museum of History

to the conclusion of the Manufactory in July 1936.

The roles and history of the Hanseong Craftwork Manufactory calls for great scholarly attention. The Manufactory made products for royal use; and at the same time it played a pivotal role to bring industrialization to handicrafts, making a substantial contributions to popularizing and commercializing artworks. Its significance also lies in the fact that the history of the Hanseong Manufactory is inseparable from the nature of the age, the Colonial period.